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1.11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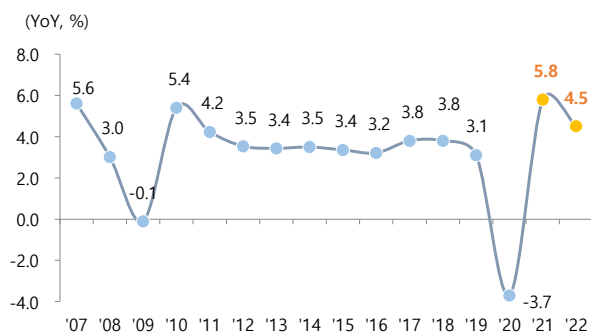
황원정 | 책임연구원(3705-6156)

- **세계(-0.1%p)**: 경기부양책 효과 지속, 초과저축에 기반한 소비 확대, 견조한 기업투자 전망 등을 고려하면 '22년에도 높은 성장 예상. 변이 바이러스 및 중국둔화는 하방 위험(Socgen)
- **미국(-)**: 서비스 부문 정상화와 가계의 우호적 재무여건이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가운데 재정 지원의 점진적 축소는 제약 요인. 코로나19 변이, 공급망 붕괴는 단기 하방리스크(Nomura)
 - '22년에는 초과수요 및 공급부족 상황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은 현재 수준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할 전망(BofA)
- **유로존(+0.1%p)**: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 수요 둔화가 예상되나 백신접종,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팬데믹-경제활동 간 연계가 약화되어 과거 확산기에 비해 성장 영향은 제한적(Citi)
 - 남유럽 유럽회복기금 집행, 독일 신호등 연정(사민당+녹색당+자민당) 구성에 따른 재정확대 기조 강화 등 재정정책도 성장을 지지하는 요인(GS)
- **중국(-0.1%p)**: 부동산 시장 부진, 수출 둔화,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성장둔화 지속 예상(Nomura). 정부는 부동산발 경기침체를 저지하기 위해 탈탄소 프로젝트 등 인프라 투자를 강화할 소지(Citi)
- **일본(-0.4%p)**: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21년 성장률 하향조정.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 활동 정상화를 제약(Nomura). 향후 가계소비, 비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회복 예상(Citi)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1 ^f	2022 ^f
Barclays	6.0	4.4
BNP Paribas	5.6	4.8
BoA-ML	5.8	4.4
Citi	5.6	4.2
Goldman Sachs	5.9	4.6
JP Morgan	6.1	4.5
Nomura	5.9	4.6
Societe Generale	5.6	4.2
UBS	6.0	4.7
평균	5.8(-0.1)	4.5(-0.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대비, 구매력평가(PPP)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각각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1 ^f	2022 ^f
	21.4Q	22.1Q	22.2Q	22.3Q		
Barclays	5.0	4.5	4.0	3.0	5.5	4.0
BNP Paribas	-	-	-	-	5.5	4.7
BoA-ML	6.0	4.0	4.0	3.0	5.6	4.0
Citi	5.6	4.5	4.2	2.3	5.6	4.0
Goldman Sachs	6	4.5	4	3	5.6	4.2
JP Morgan	7.0	2.5	3.5	3.5	5.7	3.8
Nomura	5.0	5.6	4.6	2.7	5.5	4.3
Societe Generale	4.5	3.4	2.7	3.2	5.5	3.4
UBS	5.3	4.5	4.4	3.7	5.5	4.3
평균	5.6(0.4)	4.2(-0.7)	3.9(-0.3)	3.1(0.2)	5.6(0)	4.1(-0.2)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1 ^f	2022 ^f
	21.4Q	22.1Q	22.2Q	22.3Q		
Barclays	2.8	3.2	4.1	3.6	5.1	4.3
BNP Paribas	-	-	-	-	5.0	4.2
BoA-ML	2.2	2.1	2.1	2.0	5.0	3.6
Citi	2.7	1.4	3.5	4.3	5.1	3.9
Goldman Sachs	3.4	2.3	4.8	3.4	5.1	4.3
JP Morgan	2.0	2.0	6.5	5.0	5.0	4.6
Nomura	2.4	2.4	2.0	2.0	5.1	3.4
Societe Generale	3.8	3.0	3.3	2.8	5.1	4.2
UBS	3.2	4.5	5.3	2.4	5.1	4.8
평균	2.8(-1.1)	2.6(-0.7)	3.9(0.9)	2.9(0)	5.1(0.1)	4.1(-0.2)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1 ^f	2022 ^f
	21.4Q	22.1Q	22.2Q	22.3Q		
Barclays	2.9	4.3	4.0	4.8	7.8	4.7
BNP Paribas	-	-	-	-	7.9	5.3
BoA-ML	(3.7)	(4.0)	(4.5)	(5.5)	7.7	4.0
Citi	4.0	3.8	4.3	4.8	8.1	4.7
Goldman Sachs	3.1	4.3	4.3	5.4	7.8	4.8
JP Morgan	(4.0)	(5.0)	(7.0)	(5.5)	7.8	4.7
Nomura	3.0	3.4	4.4	5.6	7.7	4.8
Societe Generale	3.0	4.2	4.6	5.0	7.8	4.8
UBS	2.7	3.8	4.7	6.3	7.6	5.4
평균	3.1(-0.2)	4(-0.1)	4.4(-0.2)	5.3(-0.3)	7.8(-0.1)	4.8(-0.2)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평균의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1 ^f	2022 ^f
	21.4Q	22.1Q	22.2Q	22.3Q		
Barclays	4.3	6.1	4.3	0.9	1.8	3.4
BNP Paribas	-	-	-	-	1.7	2.6
BoA-ML	1.9	5.2	9.0	4.0	2.0	3.8
Citi	5.3	4.8	3.2	2.6	1.7	2.9
Goldman Sachs	6.8	2.5	3	2.2	1.9	2.5
JP Morgan	8.5	6.5	3.0	1.5	2.0	3.7
Nomura	2.6	11.1	6.5	1.9	1.5	4.4
Societe Generale	5.4	4.6	3.7	2.6	2.2	3.3
UBS	3.9	6.6	3.8	1.9	1.7	3.1
평균	4.8(-0.2)	5.9(0.4)	4.6(0)	2.2(0.4)	1.8(-0.4)	3.3(-0.1)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6 혹은 wjhwa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